

강진 한우 명품시대 활짝...축산농가 웃음꽃도 활짝



최근 방문한 강진군 신전면 수암마을 윤재구씨(39) 농가. 윤씨의 입가에 웃음꽃을 피우게 한 주인공들이 축사 한쪽에 모여 별을 찍고 있었다. 대충 세어봐도 스무 마리는 넘는 듯했다. 맞춤형 계절별식으로 세상의 빛을 본 송아지들이다. 계절별식은 번식우 농가에서 가임 암소에 일괄 수정을 해 계절별로 봄, 가을철 송아지를 맞춤형 생산·사육하는 방법이다.

지난 2014년 말 기준 230만원대였던 송아지 가격은 올 4월말 현재 마리당 평균 330여만원대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국 한우 개체수가 260만 마리 이하로 줄어든다는 상황에서 강진지역 내 암소비율은 75%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번식우 농가들의 소득도 확대되는 추세다.

강진군은 전국적인 한우 부족현상을 사전 예측하고, 지역 한우농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체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 왔다.

이 같은 강진군의 선제적 한우산업 육성 정책으로 지역 축산농가의 전체적인 소득이 상승하면서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전 강진군 마량면으로 귀농한 황정민씨가 송아지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다.

군, 선제적 육성정책 효과 우수 암소 개체관리 지원 1등급 이상 출현율 69% 한우농가 소득 증대 '쑥쑥'

◇다양한 한우 육성 시책...1등급 이상 출현율 70%대 육박=강진군은 자체적으로 한우개량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우수 암소 개체관리 지원, 맞춤형형영양공급, 한우 등급향상제 공급, 한우품질등급화 장려금 지급, 혈통우전자경매시장 출하장려금 지원, 우수한우 보유농가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우수 한우 늘리기 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61%대였던 1등급 이상 출현율이 2015년 말 69%대로 연평균 3%포인트 상승하는 등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6년 전 귀농한 황정민(34·강진군 마량면)씨는 귀농 초기만 해도 배합사료가격 상승과 한우가격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강진군의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부자 축산농 대열에 합류했다.

귀농 초기 20마리였던 황씨의 한우는 올 4월말 현재 110마리로 늘었으며, 연간 매출액만 8000만원에 이른다.

황씨는 "강진군이 매년 시의적절한 한우산업 시책으로 한우농가 지원기반을 잘 갖춰놓은 덕분에 한우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농촌지역 젊은이들이 함께 연구하고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신사육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인프라 등도 풍부해 (강진군)한우개량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최적지"라고 말했다.

◇차별화된 한우 생산으로 마리당 1200만원짜리 한우도=대를 이은 한우농으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도 눈에 띈다. 성전면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우 12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김형진씨(34). 김씨는 부친이 사육한 900마리를 뒤



■강진군 한우 사육 현황

- 1300여 농가 2만8000마리
- 연간 1만5000마리 거래
- 1200만원대 한우도 출하

어넘는 등 한우분야만큼은 일등 축산농을 자부하고 있다.

군동면 젊은 한우농가 이경수씨(32) 역시 아버지와 함께 날마다 건초를 자르고 먹인다. 여주를 활용한 생균제 투입 등 차별화된 한우 사육으로 소득을 높이고 있다. 기르고 있는 한우만 300마리.

매매가 1000만원대 이상 한우도 강진군 한우농가의 자랑이다. 강진군은 지난 2013년을 한우개량 원년으로 선포하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한우산업발전 협약 체결 등 한우개량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수 유전형질을 만드는데 가속페달을 밟았다.

그 결과 한우 거래가격의 상승 안정세에 우수한 형질의 출하까지 이어지면서 1000만원대 이상의 한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도암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여섯농가 모임인 유민영농조합법인(대표 김병림)은 2013년부터 농산부산물인 옥수수, 미강,

■한우산업 육성 중점 시책

- 한우개량통합시스템 운영
- 고품질 육성 장려금 지원
- 작년 '착한 한우' 브랜드 등록

단백피, 소맥피, 대두박 등을 발효시켜 자가배합사료를 직접 만들고 가공해 먹고 있다. 매년 배합사료비 40% 절감효과에 이는 소득창출은 물론 지역 한우농가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이 법인은 생산비 절감과 더불어 기본 원칙에 충실한 한우개량, 사양관리를 품질 면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법인이 최근 3년간 출하한 거세기준 200마리 가운데 1등급 이상이 90%로 그 가운데 1+등급 이상도 70%의 출현율에 이른다. 최근 한우를 출하한 김경채 회원(59)은 8마리 가운데 6마리가 1+ 이상, 2마리가 1등급을 받았다. 회원 김병림씨는 지난 4월말 충북 음성도축장에서 최고시세 가격인 1200만원을 받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

◇군 대표 브랜드 '강진착한한우' 국민발상서 만나=올 4월말 현재 강진군은 1300여 농가에서 2만8000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이중 도축장으로 연간 8000마리, 우시장으로 5000마리, 개인간 1000~2000마리 등 연간 총 1만5000마리 안팎이 거래되고 있다.

강진군은 최근 2년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중점시책으로 매년 35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한우등록 100% 개체관리사업, 엘리트 최우수 암소선정 육성사업, 등급향상 육질개선제 공급, 한우 고품질장려금 지원, 양질조사료 생산공급, 소 안전기금 등 새로운 시책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지난해 한우 브랜드 '착한한우'를 등록하고, 한우명품관을 열어 축협과 함께 투통체제로 한우 직거래 유통체계도 마련했다.

착한한우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언제 어디서든 클릭 한 번이면 밥상 위에서 맛 볼 수 있게 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한우산업 정책으로 강진 착한한우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면서 "소비자의 신뢰 속에 강진 착한한우의 생산을 통한 군민소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브랜드 활성화에도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강진군 도암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여섯농가 모임인 유민영농조합법인 김병림 대표가 직접 옥수수, 미강, 단백질, 소맥피, 대두박 등을 발효해 만든 자가배합사료를 한우에게 먹이고 있다.



강진원(가운데) 강진군수가 최근 강진완도축협 조사료유통센터를 방문해 강진한우에게 먹일 사료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펜션 카페 영업중!!

70~80년된 밭토, 소나무, 단풍나무, 황금공작편백,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집중지 15,688㎡(4,745평), 단층 슬라브 350평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접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 C 15분 / 문평, C 5분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증-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 두 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수신경계: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염,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장기요양 · 수술후 재활 · 암케어병동 · 치매 · 중풍 · 집중치료실 · 인공신장실
의사 · 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

대표전화 (062)236-52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